

세계 첫 '선상대학' 생겼어요

호주 맥과리대 운영 '눈길' 16주간 유명항구 돌며 강의

기사프린트

호주 시드니의 명문대인 맥과리대학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이국문화를 체험하고 학점도 딸 수 있는 '선상(on board) 대학'을 세계 최초로 운영한다.

23일 이 대학에 따르면 그리스의 대형 쾌속 유람선인 '로얄 카리비안 크루즈'를 이용해 16주 동안 세계 5개 대륙, 8개 국가의 주요 항구를 돌며 강의를 하는 정원 700명의 해상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교수진과 수강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맥과리대학은 내년 1월 그리스 아테네항을 출항할 예정인 선상대학을 '학자의 배(The Scholar Ship)'로 명명했으며, 유람선의 카지노를 도서관으로 꾸미고 무도회장을 강의실로 바꿀 예정이다.

맥과리대학은 이를 위해 중국, 멕시코, 모로코, 가나 등 5개국의 6개 유명대학과 협약을 맺었으며, 세계 수준의 강의와 함께 세계 유명 항구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상대학의 커리큘럼은 국제관계와 정치, 환경, 문화 등에 대한 국제 이슈를 다루며 글로벌 기업과 국제 통상 및 갈등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도 마련하고 배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음 기항 항구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제공하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선상학습 틈틈이 유람선의 풀장과 극장, 스포츠시설 등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hescholarshi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과리대학 토니 아담스 국제담당 부총장은 "학생들은 학점 획득과 함께 다양한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강병균기자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6. 02.24. 11:30

댓글 쓰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도움말

로그인 후 사용해 주십시오.

댓글 입력

최신기사 전체댓글 모음보기


전체보기(1) → 찬성순 → 반대순

아닌데

찬성 (1) | 반대 (0)

이거 세계 최초 아닙니까. 미국 여러 대학에서도 한 학기, 한학년 동안 배타고 여행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최초일지 몰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02/25/2006 10:44:20)

콘텐츠	공무원/자격증 자동차 취업정보 부동산 법률 세무 낚시 책 중소기업
부산일보	회사소개 전화번호안내 인터넷 광고안내 / 신문 광고안내 정보서비스센터 안내광고

 **부산일보** Copyright (c) 200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he Webt